



## 4월 실업률 하락 불구, 시장반응 냉담

김세중 선임연구원

■ 미 노동부는 4월 실업률이 8.1%로 3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신규 일자리 규모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함.

- 5월 4일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실업률은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8.1%로 나타난 반면 신규 일자리 규모는 시장 예상치인 14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1만 5천 명에 그침.
- 2012년 1월과 2월의 신규 일자리 규모가 각각 27만 5천 명, 25만 9천 명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3월과 4월 신규 일자리 규모가 각각 15만 4천 명, 11만 5천 명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가함.
- 이 때문에 실업률 하락의 원인이 고용증가보다는 취업포기 인구의 증가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두되었으며, 실제로 지난 20년간 66~67%대를 유지하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3월과 4월에는 각각 63.8%, 63.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4월 실업률이 발표된 5월 4일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27%, 0.98%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고용지표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한편 뉴욕 타임즈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분야의 고용시장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노동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2011년 1월까지 229만 명의 건설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나 재취업한 경우는 이들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며, 건설업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17%로 나타남.
- 이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민간부문의 주택 건설과 리노베이션이 지연되고 정부도 공공건설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며, 건설부문은 일자리 감소와 함께 임금 수준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CBS, 5/4 등)